

■ 이것이 북한 종말 징후인가?



(유석렬 저, 예영커뮤니케이션, 374쪽)

“김정일 위원장이 올 들어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건강도 좋지 않고, 후계

계승 준비, 경제위기 극복, 천안함 국면 탈출, 카터 일행 접견등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중국에 갔다. 김 위원장이 방중을 단행한 것은 그가 인식하는 위기의식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최근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북한은 사상 가장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국내외 환경에 직면하고 있고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8월 말 김정일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방문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44년만에 개최되는 노동당 대표자 회의를 앞두고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야 할 정도로 중국의 지원과 이해를 구해야 하는 급박했던 북한 내의 중대한 내정과 외교문제가 있을 것이다. 북한내부 사정이 변하고 있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북한문제 전문가인 유석렬교수가 최근 「이것이 북한 종말 징후인가?」라는 서적을 출간하였다.

필자는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수직을 역임하였으며 국내외 대학 강의, 각급 공공기관 임원 및 정책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다수의 관련 저서를 펴낸 북한문제의 대가이다. 유 교수는 특히 학자의 길과는 달리 북·중 경계지역과 중국에서 쫓기며 학대받는 탈북 동포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생필품을 제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면서 이들로 부터 수집한 산 정보를 활용하고 국내외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북한의 실상과 문제점을 명쾌하게 답해주고 있다.

저자는 작금의 북한내부 정황을 볼 때 김정일 정권은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그 운명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그 징후로 심각한 식량난, 북한주민들의 체제일탈,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후계급조, 권력실세들의 병사와 심각한 질환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악화와 국제제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심각한 경제문제와 식량난이다. 지금 북한은 1990년대 대기근에 못지않는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다. 만성적인 식량부족에다 핵과 미사일 도발로 자초한 결과다. 경제회생의 극약처분으로 실시한 화폐개혁이 실패한 이후 식량난은 가중되고 북한 당국은 굶주린 북한 주민들의 생존수단으로 형성된 ‘장마당’이 외부 정보 유입의 통로가 되고 자본주의 풍조가 확산되는데 위협을 느껴 시장을 강력히 통제코저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과 거센 저항에 부딪쳐 결국

‘장마당’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인민을 먹여살리는 것이 더 이상 ‘경애하는 수령’이 아니라 시장으로 전환된 것이다. 어렵게 연명해온 김정일 체제는 혼란에 빠지고 있다.

둘째, 북한주민들의 심각한 체제 이탈이다. 최근 들어 북한에는 인민대중의 힘이 커지고 있다. 북한정부가 주민에 주던 식량배급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생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못하자 시장화 현상은 계속 확산되고 중국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비공식 교역이 급증하면서 바깥세상의 현실에 눈을 뜨는 북한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암시장이 우후죽순으로 번창하고 기존 가치관의 변화로 배급주의가 확산되어 사회주의 이탈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하경제, 개인소유, 뇌물과 부정부패 등 물질주의 성행으로 국가통제경제가 사실상 붕괴되고 있다. 계속되어 온 경제난으로 민심은 이반하고 있고 김정일정권의 통치력은 약화되고 있다.

셋째,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권력승계의 불투명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와 노쇠로 인해 ‘김정일 유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뇌졸중에다 당뇨, 신장질환,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등 합병증을 앓고 있고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지난해에 김 위원장의 5년내 사망 가능성이 71%에 달한다고 예측한 바도 있다.

이러한 건강악화는 ‘후계자 논의 금지’의 금기를 깨고 서둘러 3남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행보를 내딛게 하고 있다. 김정일 왕조를 계승하는 후계체제 확립을 위해 권력체제를 개편하고 김정

은 후견그룹을 구성하는 인물들을 핵심 조직에 포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혁명업적이 일천한 김정은은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경험이 없어 내부반발에 봉착할 수 있다. 권력배분에 따른 갈등과 투쟁양상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저자는 평양의 핵심권력 실세그룹을 ‘움직이는 병동’이라고 한다. 평양의 권력 실세들이 최근 수 년 동안에 줄줄이 병사했거나 살아있는 실세 상당수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핵심권력 실세들이 유달리 심장병, 신부전증, 뇌졸중, 췌장암 등 심장질환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유럽, 중국등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순환기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증세는 권력 투쟁과정에서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며 이는 김정일의 권력 기반이 기울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들이다.

다섯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위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국제제재를 자초해 생존을 단축시키고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벼랑끝 외교를 통해 식량과 에너지 원조로 체제를 건디어 왔다. 지난해에는 유엔 안보리의 혹독한 경제제재와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무모한 도전을 감행하였다.

국제사회는 분노하였고 유엔 안보리는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등 더욱 단호한 대북제재를 결의하였다. 북한은 총체적인 국내위기와 대외적인 고립을 면하기 위하여 전쟁위협을 통한 생존전략을 추구하였으나 국제사회의 고립과

유엔의 제재를 자초하여 오늘날의 식량난과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도박과 벼랑끝 외교가 덩어리 걸리고 말았다.

이 책은 북한의 이러한 무모한 행위의 배경과 실상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먼저 북한을 보는 올바른 시각과 자세를 세심히 짚어보고 북한의 정세와 생존전략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의 핵심과 실패를 파고들고 사면초가에 직면한 대외환경 변화와 북한이 곤경에 처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6자회담과 북핵 해결 전망과 과제를 현실성 있게 다루고, 북한 인권과 탈북문제 등 다양한 부문을 폭넓게 적시하는 등 남북관계의 본원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북한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이해와 대북활동의 '지침서'로 활용하기를 권한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북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지원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과거의 낙관론은 허구이며 이는 오히려 남한내 소모적인 '남남갈등'을 야기시켰고 오늘날의 북한을 있게 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매장마다 끝부분에 '우리의 기도'를 실고 있다. 북한의 변화, 북한주민의 자유와 해방, 남과 북의 공존과 변영

그리고 평화통일 길을 간구하고 있다. 북한 정부의 탄압 하에 자행되는 반인륜적 인권침해의 잔학상을 고발하고 있다. 북한의 실체를 밝히고 바깥세상을 널리 알려 고통받는 주민을 구제하여야 한다고 외친다.

북한의 진정한 개혁, 개방과 변화 그리고 탄압과 박해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아래로부터'만이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런 움직임은 북한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올바른 지식없이 급히 뛰어 들어가 학교를 설립하고, 병원을 건축하고 교회를 지은 사람들이 북한주민의 인권에는 개선하지 못하고 '악의 정권' 수명 연장하는데 기여한 것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한다. 북한의 실체는 무엇이고 김정일 정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지식위에서 대북 화해전략, 강경전략, 인권전략 등이 구상되어야 한다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도 없이 살아가는 북한주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가슴으로 말하고 있다. 북한을 돕고 북한 동포를 굶주림과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는 북한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 책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편집실-문병록) **외교**